
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2.1.(목) / 총2매(본문1)	
담당부서	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	담당자	·과장 유경수, 사무관 이호진 ☎ (044) 201-4294, 4303 ·과장 박순건, 주무관 이해영 ☎ (051) 668-0241, 0244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남북, 베이징서 비공개 접촉...항공기 관제권 합의에 서명” 보도 관련

- 보도된 기사중 일부(마식령行을 위한 합의서 사전 작업)는 사실과 다릅니다.
- 작년 신설된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가 운영 개시('17.12.7)됨에 따라 평양관제소와의 관제권 이양지점(KANSU)이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 관할 범위에 속하게 되고,
- 북한의 항공기 고도 표시 단위가 변경(미터→피트)되어,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남북간 관제 합의서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.
- 참고로, 남북간의 관제협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'98년도부터 운영중이며, 러시아항공기는 일평균 약16대가 북한상공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비행하고 있고 대구항공교통관제센터에서 평양과 협의하며 항공기 관제업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.
- 기사에서 언급한 남북 직항로는 현재 항공로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남북선발단에 의해 임시로 운항하는 직항로입니다.

< 보도내용 (조선일보, 2.1자) >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남북, 베이징서 비공개 접촉....항공기 관제권 합의에 서명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 박순건 과장(☎ 053-668-02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항공교통관제소 관할 구역 지도

